

---

-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한 -  
**2013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利川市議會

## 《연수개요》

- 연 수 국 : 중국(항주, 황산, 상해)
- 연수목적
  - 중국 항주, 상해의 자전거 도로 운영 실태를 파악, 환경보존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방안을 강구
  - 관광자원으로 개발 된 명승지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우리시 접목 방안을 모색
- 연수기간 : 2013. 6. 18 ~ 6. 22 (5일간)
- 연수인원 : 13명(의원 9명, 직원 4명)

## 〈 목 차 〉

|                  |       |    |
|------------------|-------|----|
| I. 연 수 개 요       | ----- | 1  |
| II. 연수지역 개요      | ----- | 3  |
| III. 방문지별 연수내용   | ----- | 6  |
| IV. 연수시사점 및 발굴사례 | ----- | 15 |
| V. 후기 및 소감       | ----- | 20 |

# I. 연 수 개 요

## 1. 목 적

중국의 항주, 상해의 자전거 이용 및 도로 실태를 파악, 이천시 자전거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중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여 우리시 관광산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시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기 간 : 2013. 6. 18(화) ~ 6. 22(토) 【5일간】

## 3. 연수국가 : 중국(항주, 황산, 상해)

## 4. 참가인원 : 13명

| 연 번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비 고   |
|-----|-----------------|-------|-------|
| 1   | 의 장             | 이 광 희 |       |
| 2   | 부 의 장           | 김 학 원 |       |
| 3   | 의 회 운 영 위 원 장   | 한 영 순 |       |
| 4   | 자 치 행 정 위 원 장   | 성 복 용 |       |
| 5   | 산 업 건 설 위 원 장   | 김 용 재 |       |
| 6   | 의 원             | 김 문 자 |       |
| 7   | 의 원             | 김 인 영 |       |
| 8   | 의 원             | 임 영 길 |       |
| 9   | 의 원             | 정 종 철 |       |
| 10  |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 최 재 한 | 의회사무과 |
| 11  | 의 정 팀 장         | 박 영 근 |       |
| 12  | 행 정 7 급         | 김 동 현 |       |
| 13  | 행 정 8 급         | 윤 건 상 |       |

## 5. 연수일정

| 날 짜         | 장 소            | 시 간            | 내 용                                                                                                                                                                                                                                                    |
|-------------|----------------|----------------|--------------------------------------------------------------------------------------------------------------------------------------------------------------------------------------------------------------------------------------------------------|
| 6.18(화)     | 인 천<br>항 주     | 12:40<br>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국제공항 출발</li> <li>- 항주 국제공항 도착</li> <li>- 항주시내 자전거 도로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최대 공공자전거도시로 급부상한 항주의 자전거 도로를 견학</li> </ul> </li> <li>- 송성극장 견학 및 관람</li> <li>- 차 재배지 및 찻집 거리</li> </ul> |
| 6.19(수)     | 항 주<br><br>황 산 | 전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호 호수 탐방<br/>(황산으로 이동)</li> <li>- 황산 명청대 옛거리 탐방</li> </ul>                                                                                                                                                    |
| 6.20(목)     | 황 산            | 전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산탐방(서해대협곡 등)</li> </ul>                                                                                                                                                                                      |
| 6.21(금)     | 황 산<br><br>상 해 | 전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해로 이동)</li> <li>- Sanghai Day-up Information Technical INC 회사 방문<br/>자전거 대여시스템(거치, 보관, 대여 등 기능) 개발, 생산, 관리회사 방문</li> <li>- 상해 임시정부청사유적지 방문</li> <li>- 예원 옛거리 탐방</li> <li>- 상해 도시(야경, 황포 유람선 이용) 탐방</li> </ul> |
| 6.22<br>(토) | 상 해<br><br>김 포 | 2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방명주 성시 박물관</li> <li>- 상해 국제공항 출발</li> <li>- 김포 국제공항 도착</li> </ul>                                                                                                                                            |

## II. 연수지역 개요

### 1. 중국 항주 (Hang-chou, 杭州)

항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절강성의 성도(城都)로, 7대 고도의 하나로서 중국이 자랑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로 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수려하다. 13세기 무렵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항주에 들렀다가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항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칭송했다고 전해진다.

항주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여 사계절이 분명하다. 6개의 구와 2개의 현으로 나뉘며, 총면적은 683km<sup>2</sup>이고, 인구는 170만 명에 이른다. 2,100년 전의 항주는 중국의 여섯 개의 역사적인 수도 중 한 곳이었다. 항주와 북경 간에 대운하가 건설되었을 때, 도시는 점차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했으며, 9세기부터 237여년 동안 14명의 황제가 항주를 수도로 선택했다.

항주는 연평균 기온이 16℃ 정도로 온난 습윤하며,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계절마다 특색이 있어 어느 계절에 여행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멋이 있다.

항주의 첫 느낌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다. 항주에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유람선을 타고 서호와 그 둘레에 있는 명소들을 둘러본 후 육화탑과 영은사를 둘러보면 된다.

❖ 면 적 : 16,596km<sup>2</sup>

❖ 인 구 : 약 870만 명

❖ 기 후 : 사계절이 뚜렷한 아열대 기후다.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춥고 건조하다. 연평균 기온은 16.2℃.

## 2. 중국 황산 (黃山)

옛부터 다무도회(茶務都會)라 불릴 만큼 차 거래가 왕성했던 둔계시와 서센, 슈닝센, 이센, 황산풍경구 등과 함께 황산시로 편입이 되었다. 따라서 둔계역은 황산역으로, 둔계공항은 황산공항(황산둔계공항)으로 그 명칭이 모두 바뀌었다. 황산시는 황산을 가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머무는 숙소와, 음식점, 상점이 위치한 곳으로 북경, 남경, 상해, 항주 등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비행기나 열차, 장거리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황산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제일의 명산, 황산(黃山)

중국의 산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산이 이 황산이다. 황산은 중국 10대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며, 1990년 12월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되었다.

중국 남부의 안휘성 동쪽에 자리잡은 이 산은 중국에서의 명성만큼이나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로 중국인들에게 제일의 명산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고대 시인들은 황산을 칭송하면서 '황산을 보고 나면 그 어떤 곳도 눈에 차지 않는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황산은 크게 위로 오르면서 온천구(溫泉區)-옥병루(玉屏樓)-연화봉(蓮花峰)으로 나뉘는데, 온천은 황산의 입구에 있어 주로 이곳에 숙박시설이 몰려있다. 옥병루는 해발 1,680m에 위치한 곳으로 원래는 문수원의 유적이었다. 이곳에서부터 정상인 연화봉에 이르는 코스에서 망망대해의 운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제일 높은 곳인 연화봉은 정상이 1,860m로 황산의 모든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면적 : 9,807km<sup>2</sup>

❖ 인구 : 약 150만명

❖ 기후 : 온화하고 비가 많으며 사계가 분명하다. 연평균 기온은 15~16℃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에도 혹한이 없다. 연 강수량은 1,670mm이며 5~8월에 집중된다.

### 3. 중국 상해

상해의 옛 이름은 고기 잡는 통발을 뜻하는 ‘후’였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상해는 아편전쟁 이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중국 제1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인구는 2010년말 기준 2,302만 명으로 충칭(重慶)에 이어 중국 내 2위이며,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10배인 6340km<sup>2</sup>다. 신 개발지구인 푸둥(浦東) 지역의 넓이만 하더라도 522km<sup>2</sup>로, 여의도의 60배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유럽제국의 조계지가 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거리로 일컬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으며, 현재도 계속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몇 개월 만에 상해를 다시 찾아도 몰라보게 달라진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다. ‘만만디(慢慢的)의 나라 중국’이라지만 상해만큼은 이 말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반면에 국제도시로 변모한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스러운 건물이나, 오래된 절, 이름난 정원에서 중국의 과거도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바로 상해다. 더불어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관광도시이자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과 윤봉길 의사의 의의를 느껴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 면 적 : 6,340km<sup>2</sup>

❖ 인 구 : 약 2,300만명

❖ 기 후 :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추운 계절풍 기후다. 여름 평균 기온은 28℃, 겨울 평균 기온은 3℃. 여름 최고 기온이 40.2℃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연평균 강우량은 1,302mm

### Ⅲ. 방문지별 연수내용

#### 1. 항주 자전거 도로 및 서호, 송성테마파크

##### ■ 공공자전거시스템 및 자전거 도로



항주의 자전거 도로



붉은색 공공 자전거



자전거 시승

항주 도심에서는 붉은 색 자전거를 어디서든 볼 수 있다. 붉은 색 자전거는 바로 항주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로 시민들은 무인임대시스템 방식으로 자전거 거치대 센서에 카드를 대고 자전거를 빌려 탄다.

항주 도심에는 사람도 많지만 자동차도 많아 교통 정체가 매우 심하다. 교통 정체의 대안으로 항주는 공공자전거를 도입했고 현재 대여소 2962개소와 공공자전거 6만 9000여대를 운영하여 항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였다.

항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강점은 자전거를 빌려 이용하고 반납하는 과정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도심 곳곳에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어,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드만 갖다대면 임대, 반납, 요금 지불 등이 간단히 처리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이용이 아주 편리하다.

또한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이 무료라는 점도 공공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타게 되는 이유이다. 보증금을 포함해 300위안 정도의 IC 카드를 구입해야 하지만 1시간 이내로 타면 요금자체가 무료이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라고 한다.

항주는 대여소 건설과 공공자전거 구입 운영 초기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대여소 벽면과 자전거 바퀴 덮개에 광고를 유치하고 대여소에 소형매점 등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해 재정을 보전하고 있다.

항주의 공공자전거시스템과 함께 도심 어디에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사정에 따라 선을 그어 차로와 구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작은 나무를 심어서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전거를 타기에는 불편이 없어 보였다.

다만,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주차구역이 있는 곳도 있고 전동자전거, 스쿠터 등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위험해 보였으며 특히 교차로나 도로가 합류하는 부분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위험해 보였다.

## ■ 서호, 송성테마파크



서호



서호의 유람선

서호는 항주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유명한 미인 서시(西施)를 기념하는 의미로 '서자호(西子湖)'라고도 불린다. 서시는 월나라 왕인 구천(勾踐)이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에게 바쳤던 인물로, 결국은 구천의 계략대로 오나라왕 부차가 서시의 미모에 빠져 나라일을 돌보지 않게 되었고 오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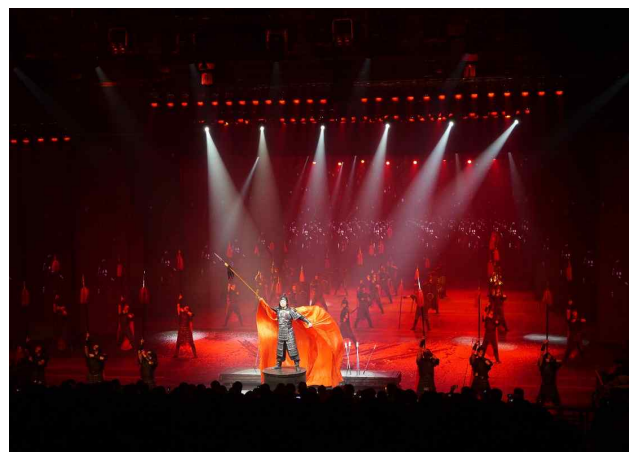
서호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호수에는 소영주, 호심정, 완공돈 등 3개의 섬이 떠있다. 호수의 총 면적은 60.8km<sup>2</sup>이며, 그 중 수역의 면적은 5.66km<sup>2</sup>이다. 서호 안과 근처에 위치한 유명한 명소 10가지를 서호 10경(西湖 10景)이라 부른다.

서호는 중국인들을 포함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고 소동파는 서호에 대하여 수많은 작품을 남겨 서호가 더욱 유명해 졌다.

서호는 넓은 면적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에 걸맞게 많은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가장 중국적인 멋을 가진 건물과 구조물들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서호 안에 설치된 인공섬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상품개발과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송성테마파크



송성가무쇼

항주에는 중국의 역사를 기반으로 관광지로 개발한 송성테마파크가 있다. 이 안의 송성극장에서 펼쳐지는 송성가무쇼는 중국 남송시대를 재연한 세계 수준의 쇼로 서호를 배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송나라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연으로 항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다.

송성가무쇼는 보통 1일 3회 정도의 공연이 펼쳐지는데, 최대로 많이 공연할 때는 1일 8회까지 공연한다고 한다. 송성극장이 3천 5백석 규모임을 감안하면, 1일 1만 명 정도가 관람한다고 계산해도 관람객 수와 입장 수익이 많다.

송성테마파크는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고 고대 송나라의 건축양식을 재현한 건물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 등 중국의 옛 문화와 삶을 가지고 특색 있는 관광명소와 상품으로 개발하여 항주 도심으로부터 약 25km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항주 도심과 송성테마파크 사이에는 중국의 명차인 용정차 재배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의 좌우로 늘어선 찻방에서 용정차를 판매하는 등 중국의 차 문화를 관광상품화 하고 있다.

## 2. 황산과 명청대 옛거리

황산은 안후이성 남부의 황산시에 있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1982년 국가중점풍경 명승구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 유일한 산악풍경구로 중국 10대 풍경명승구에 선정되었으며 1990년 12월에는 UNESCO의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재 되었다.

황산은 우리나라의 산과는 또 다른 경치를 가지고 있는 산으로 바라보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중국의 명산이다. 케이블카 승차장까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정상 부근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어, 황산의 경치를 구경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황산 관광의 편의를 위해 바위 면에 돌계단을 만들어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이동통로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나무모양으로 난간을 만들어서 마치 나무가 옆으로 누워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또한 케이블카 승하차장 부근에 호텔이 있어 산위에서 편안하게 밤을 보내고 일출을 감상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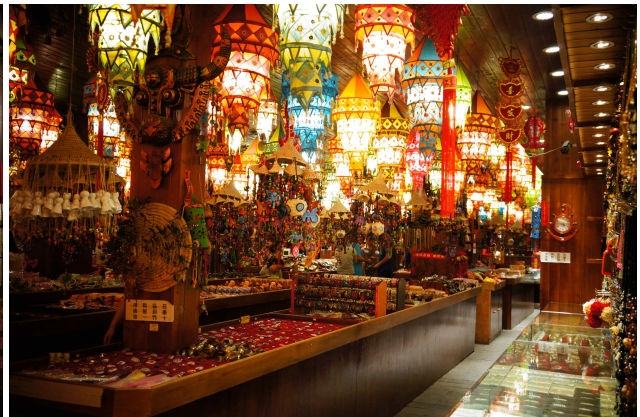
황산 서해대협곡



황산의 케이블카



명청대 옛거리



명청대 옛거리의 상가

황산 시내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명성을 유지하듯 그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명청대 옛거리도 조성되어 있어 상업이 흥하던 시절의 멋진 건축물과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유사한 곳으로 1층의 상가에서는 벼루, 모자, 액세서리, 공예품 등 갖가지 물건을 팔고 있으며 식당들이 들어서 있다.

### 3. 상해 자전거도로 및 예원, 동방명주탑

#### ■ 상해 자전거도로



상해의 자전거 도로와 무료자전거



자전거 보관.대여 시스템 시찰

중국 상해는 인구 2,300여 만 명의 대도시로 도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극심한 교통정체를 마주했다. 도로는 수많은 자동차로 빈틈이 없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규모의 인구가 살고 중국 제일의 경제발전 도시임을 실감케 했다.

상해 또한 항주 못지않게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차도, 인도와 구분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시내 어디를 가든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했다.

상해의 자전거도로는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도심 외곽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었고 정비 상태 또한 좋아 자전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지만 역시 전동자전거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무더운 기후에 먼거리를 인력으로만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항주에 다른 점은 상해는 항주의 붉은 색 자전거와 같은 공공자전거가 눈에 띄지 않았고 자전거대여소가 보이지 않았으나 곳곳의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있었다.

상해에 소개하고 있는 Sanghai Day-up Information Technical 회사는 자전거 보관·대여하는 시스템을 개발·보급·관리하는 회사로 베이징 등에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용방법은 항주의 자전거 대여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대여와 반납을 하면 되고 자전거 분실 등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인적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주와 상해 그리고 베이징 등 대도시 교통량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자전거 운영, 자전거 도로 구축 등 자전거 정책을 중국의 대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 ■ 동방명주탑 및 예원

동방명주탑은 상해 푸동의 금융구에 있는 방송 수신탑이다. 1994년 준공 이래 상해의 랜드마크로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총 높이 468m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빌딩이란 기록을 세웠다.

동방명주탑 내부의 고속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한다. 351m, 263m, 259m에 각각 전망대가 꾸며져 있는데 259m의 전망대는 Transpatrent Observatory로 바닥이 투명판으로 되어 있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전망대이다.

동방명주탑 안에는 높이 만큼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롤러코스터와 같은 놀이시설, 영화관, 정원바, 서점, 시티 갤러리, 상해 역사박물관 등이 있어 동방명주탑 안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가 있다.



동방명주탑



전망대에서 바라본 상해



전망대 내부 기념촬영

예원(豫園)은 소주의 4대 정원과 함께 강남명원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남방 정원 양식의 대표적인 중국 정통 공원으로 16세기 옛 중국을 대변하는 전통의 상해 모습으로 완공하는 시간이 20년 가까이 걸린 세밀하고 웅장한 정원이다.

상해시 동남쪽에 위치한 중국 전통 정원으로, 명나라의 관료였던 반윤단(潘允端)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1559년에 착공하여 18년만에 완공한 정원 건축물이다. 북경의 황궁정원 이화원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예원’이라는 이름은 ‘유열노친(愉悅老親)’, 다시말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원 안에는 40여 개의 정자와 누각이 있다.

예원 옆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특한 기념품이나 전통 공예품, 먹거리들을 파는 예원 시장이 있는데, 100여 년 전에는 예원의 일부였기에 전통적인 건물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곳이다. 예원상장은 예부터 시장이 들어서 있던 거리로 중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가게마다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다.

예원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과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예원 시장거리가 가득 찼다. 훌륭한 관광자원 옆에 쇼핑과 외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상점에 드나드는 사람들 수가 많아 관람료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의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원 내부 기념촬영



예원 옛거리의 건축물

## IV. 연수 시사점 및 발굴 사례

항주와 황산, 그리고 상해는 중국 경제성장의 중심도시 또는 대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이면서 관광명소로도 손꼽히는 도시이다. 또한 영토의 면적이나 정치체제, 사유재산 제도 등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은 나라로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중국다움을 추구하면서 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가장 중국적인 관광자원과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적인 규모와 추진력으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가장 우리다운 것으로 신중하면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라는 기본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연수를 통한 소감과 우수한 사례는 추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여 이천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며, 연수 시사점 및 발굴내용 몇 가지를 간략히 작성하고자 한다.

### 1. 항주와 상해의 자전거 인프라, 이천도 가능할까?

항주와 상해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 보다는 직장 출퇴근 시 이용 등 이동 수단 확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구는 중국의 대도시답게 이천시 보다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자동차도로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웬만한 경사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두 도시 전체가 평탄한 지형을 이룬다. 결국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가지 큰 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오토바이 포함) 통행로가 없는 도로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처음 도시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활용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곳곳에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자전거 전용 도로 인프라 구축 두가지로 나뉜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 경우 중국 상해나 항주와 비교하였을 때 이미 시가지 도로 등 도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가 어렵고, 인구 밀집도가 낮아 공공자전거 활용도가 낮을 것,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형 특성 상 언덕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반면 유리하거나 도입 필요성을 요하는 조건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의 미흡과 시가지 공용주차장 부족,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시가지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 그 밖에 대기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이렇듯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된 선진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이천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도입은 많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같을 수는 없는 법이며 이천시가 가진 장점과 단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우선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선불리 도입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의 대체 이동 수단 확보와 건강 증진 목적의 자전거 타기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망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자.**

이번 국외 연수의 또 한가지 주요한 목적은 중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여 우리시 관광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저절로 사색에 빠져 드는 서호, 그 웅장함에 넋을 잃게 만드는 황산을 앞에 두고서 ‘압도당한다’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큰 감동을 마주했지만 우리 이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두 곳의 그것과 필적할 만한 관광지가 많지 않기에 연수 목적에 맞는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그들만의 특색을 살린 인공 관광자원들이다. 이천시의 자연 자원의 경우 이미 개발되었거나 상대적으로 규모에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해야 할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항주에서 만난 송성테마파크와 송성가무쇼, 황산의 명청대 옛거리와 상해의 예원 옛거리를 주목해야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전통과 특색을 인위적으로 다시 살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게 한 것이다.

그 중 황산의 명청대 옛거리는 그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전통 시장일 수도 있지만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 건축양식의 상점들과 각종 공예품들은 타국에서 온 관광객이 보기에는 마치 중국의 역사 그 자체와 마주한 느낌까지 들게 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 것으로 가져 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

관고 전통시장과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다른 자치단체와는 완전히 차별화 되고 오직 이천에서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바뀌보는 상상을 했다. 또는 한옥마을, 도자마을처럼 우리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 한가지, 항주 송성테마파크에서 만난 중국 남송시대를 재연한 송성가무 쇼는 1일 3회에서 8회까지 공연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입장료였음에도 3천 5백석의 관람석 중 빈자리는 없었다. 물론 비싼 입장료만큼이나 공연 수준도 일품이었다.

우리 시는 연중 지속은 아니지만 4대 축제 때를 비롯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축제 때는 물론 무료거나 소정의 주차료 정도만 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우리 시의 관광사업은 이천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수익사업으로는 취약했다. 과연 우리 이천시에는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고도 보고 즐기고 돌아가서 입소문까지 내 줄 관광 자원이 있는가? 없다면 그런 관광 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할 만큼 전통이 없는가? 아니면 문화가 없는가?

이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관심 갖고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수 첫날 우리가 마주한 송성가무쇼처럼 빼어난 전통과 문화로 우리만의 특색을 가미하고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이 것을 연중지속은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축제를 통해 관광객에게 선보인다면 공연으로도 직접적인 관광수익 뿐만 아니라 도시 홍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큰 가능성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많은 규제에 막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기업여건과 같이 여전히 어려운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천혜의 관광자원 보다는 우리만의 특성이 있는 인공자원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돈이 돌게 하는 것, 게다가 지역 홍보 효과까지, 이것은 차선이 아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 V. 연수 후기 및 소감

중국은 거대한 땅과 인구를 가진 그야 말로 거대한 국가이다. ,정치와 경제 제도 또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중국의 도시들과 우리 이천시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항주, 황산, 상해 크고 작은 중국의 세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며 그들과 우리 이천시와의 커다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로 찬란한 내일을 향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와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한다. 거기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소득을 올리고,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지역의 홍보효과까지 누린다. 사람들은 편리한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저마다 갈 곳을 찾아 열심히 페달을 밟는다.

여전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 발전을 전면에서 이끄는 대표선수로서의 항주, 황산, 상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현재 진행형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는 그들이 가진 강점과 불완전한 모습도 함께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이천의 비전은 무엇인지 먼저 그 루트를 분명하게 정하고 당초 연수목적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또한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야 할 일들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들을 다각적이고 충분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제5대 이천시의회 1년을 남기고 실시한 이번 연수 또한 향후 이천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견문을 넓히는 취지로 실시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원·내외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며, 이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잘사는 이천,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배움의 장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배우고 익히는 데 충분한 노력을 쏟아낼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연수보고서를 끝맺고자 한다.